‘블루오션’개성관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유병규

드디어 개성 관광시대가 열렸다. 지난 8월26일에 시작된 시범 관광이 9월2일과 7일 두번에 걸쳐 추가로 시행될 예정으로 1500명의 남측 관광객이 개성을 둘러볼 것이다. 머지않아 개성 관광도 남측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여행상품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개성은 서울에서 하루만에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여서 앞으로 여행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성 관광은 이전보다 더욱 더 남북간의 다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간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남북한간 역사와 문화학자들의 교류가 빈번해져 개성 관광을 계기로 고려사 연구가 크게 진전될 것이다. 개성은 고려시대의 도읍지로서 고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어 박연폭포와 같은 자연 관광지뿐 아니라 문화유적지로도 큰 주목을 받는 곳이다. 이번에 둘러본 성균관, 선죽교, 숭양서원은 물론 제2, 3차 관광 때 둘러보기로 했다는 왕건릉 등이 이의 대표적 유적지들이다. 그동안 지리적인 특수성 등으로 인해 고려 역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하는데 이번 개성 관광을 계기로 고려 역사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측 역사나 문화학자들의 학술 교류가 빈번해지고 우리 민족의 공동 자산인 고려 문화 유적지들이 더욱 더 많이 발굴 보존되면 국내 역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 역사상 도읍지 중의 하나인 개성은 경주와 마찬가지로 각급 학생들의 수학 여행 및 소풍지로 활용하기가 안성맞춤이라고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학생들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면 남북한간 젊은이들의 언어나 생각 그리고 생활상의 이질감도 점차 해소되리라 여겨진다. 개성 관광이 단순한 풍물 여행이 아니고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가는 역사 기행이 되는 셈이다.

개성 관광은 남북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된다. 우선 북측의 관광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남북간의 우호감이 증진돼 북측에 대한 남측의 투자도 증가할 것이다. 우선 북측의 도로나 통신 그리고

숙박 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개성 공단 개발사업도 보다 더 활기를 띨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개성 관광의 성공은 백두산 관광사업과 함께 이미 예정된 철도?전력과 같은 주요 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들 사업은 남북 양측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제 북측에서 한라산에 오겠다고 하니 이러한 생각들이 현실화되면 말 그대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남북한 국민들이 남북의 양단을 오고가는 한민족 관통의 시대가 개막되게 된다.

개성 관광은 무엇보다 분단의 상징인 38선을 넘어 이뤄진다는 데 매우 큰 뜻이 있다. 그동안 분리됐던 남과 북의 허리가 개성 관광을 통해 다시금 이어지는 것이다. 관광 사업은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의 긴장감이 급속히 해소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도 평가된다. 결국 갈등과 대립을 상징하던 개성 주변의 비무장 지역(DMZ?Demilitarized Zone) 일대가 이제 공단 및 관광 사업을 통해 새로운 통일과 평화의 꿈을 일구어가는 새로운 DMZ(Dream Making Zone)로 탈바꿈해 가는 것이다.

개성 관광이 금강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의 동질감을 형성해 가는 그야말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통일 사업으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북측 양 당국과 사업 당사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역사적 장기 안목을 지닌 깊은 상호 이해와 협조 그리고 긴 인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특히 개성 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 사업이 이제 점차 남북 상호간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공동의 노력을 다 하여야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까지도 최대한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 관광 사업이 민족 화합과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열고 남북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황금 열쇠가 되길 꿈꾸어 본다.